

일자리·임대아파트 많은 광산구·여수에 최다 거주

광주·전남 탈북민 실태조사

광주·전남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거주지역은 광주 광산구와 여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영구·임대아파트가 많고 공단밀집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거주지역 선택시 취업과 주거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도 보여주거시 이벤트나 물질적 인센티브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탈북민 정착을 위한 취업·주거문제 해결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2014 탈북민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수는 광주 576명·전남 568명 등 전국의 2.25%인 1144명이다.

광주지역 거주 현황을 보면 광산이 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북구(186명)·서구(83명)·남구(13명)·동구(5명)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여수(182명)·목포(160명)·순천(80명)·무안(27명)·광양(25명) 등이었다. 반면 장성은 1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강진·고흥·신안·장흥은 각각 2명씩이었다.

이 같이 지역별 거주 편차가 심한 이유는 지역사회 정착시 필요한 거주지 문제 때문이다. 광주·전남 이탈민 중 854명(74.7%)은 영구·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어 ▲전월세(185명·16.2%) ▲자가(56명·4.9%) ▲기타(31명·2.7%) 등이다.

이탈민 전입자가 배정 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 수가 각 시·군·구별로 차이가 나면서 상대적으로 배정 확률이 높은 광주 광산·북구, 여수·목포 등을 선택한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 공단이 활성화된 곳이라는 점도 이탈민들 사이에 선호도가 높은 이유로 꼽힌다. 광산엔 팽동·하남산단인, 여수엔 여수산단 등이 자리해 다른 지역에 비해 취업 기회가 더 열려

75% 영구·국민임대아파트

사무직 취업 6% 불과

일자리 찾아 수도권 이주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고용의 질적 측면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용직에 취업한 탈북자 비율은 46.2%(전국 평균 53.2%)로 낮지 않았지만 직종으로 보면 사무직은 7.0%에 불과했다. 상당수는 '단순노무'(38.0%)나 '서비스업'(21.4%), '기능종사자'(9.1%) 등이었다. 또 '임시직'과 '일용직근로자'는 각각 14.2%와 30.9%로 상당히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용직' 비율은 일반 국민의 6.1%보다 5배 가량 높았다.

광주·전남은 취업에 유리한 공단지역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주거지역 선택 시 선호지역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탈북민들이 주거 배정을 받은 뒤 취업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탈북민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려면 지난 2013년 폐지된 고용장려금 제도와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각 시·군·구의 관심이 부족한 지역 등 정책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광역서비스 체계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다.

남북하나재단 관계자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이 최우선"이라면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각 지자체와 정부,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이들의 거주와 취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국민의당 당선자 총회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 법사위원장·더민주 국회의장 유력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원구성 협상 탐색전

여야 3당은 10일, 20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院) 구성 실무 협상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건례를 겪어 만나 "대화과 타협을 통해 성과를 내는데 꼭 중점을 두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관영 수석 부대표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다만, 이들 세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국회의장단 구성 방안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문제 등 정치권의 핵심현안과 관련해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채 약 30분 만에 헤어졌다. 20대 국회에서 3당간 '협치(協治)'를 강조하는 등 덕담만 주고 받으며 향후 이어질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해 탐색전만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다툼은 20대 국회 원내 1당 자리를 확보한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더민주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더민주에서 맡는다면 안전 심사의 최

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내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1, 2당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공식화함으로써 사실상 논란을 끝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통적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항상 반대로 맡아 왔다. 입법 활동이 일정적으로 흘러선 안 되고 상호 견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을 1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탈당파들이 일부라도 원 구성 전에 복당하면 원내 1당 지위를 회복하지만, 인위적으로 1당이 돼서 국회의장직을 가져오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가져오려면 먼저 원 구성 이전에 탈당자를 복당시켜 1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건 안 맞는 것이다. 선거 결과의 의미를 존중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더민주도 이전보다는 다소 유연해진 모습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느 일방의 욕심만으로 국회의 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만나서 상의해보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월 민심 잡기...여야 정치인 줄줄이 광주행

박원순·문재인·정의화·송영길...

시민들 "'임 행진곡' 해결부터"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이 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계기로 '5월 광주'의 민심을 두드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민심의 눈길은 곱지 않은 채다. 정치권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식 제창 문제에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언급한 '정계 은퇴' 발언을 매듭지을 것인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12~14일 광주를 찾는다. 12일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을 방문하고 13일 오전 전남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에 박 시장이 광주 방문을 계기로 정치적 보복을 넘겨 차기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청년의 꿈이 나라의 미래를 밝힌다'를 주제로

특강한다. 지난달 7일 조순대 강연 뒤 한달여 만의 재방문이다. 정 의장은 임기 만료 후 '새로운 정치 판을 위한 정치 결사체 구성'을 예고한 바 있어 그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더민주 전대에서 당권 도전을 선언한 송영길 당선인도 11일 오후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강연에 나선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참패를 겪은 더민주의 구애는 파상적이다. 더민주 오는 12~13일 열리는 당선인 워크숍 장소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로 잡았다. 오는 18일 5·18 기념식에도 가급적 당선인 전원이 광주를 찾을 방침이다.

국민의당 당선인들은 17일 전북을 거쳐 18일 광주에 집결,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새누리당도 가급적 모든 당선인들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막판, "호남이 지지를 철회한다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일본여행 이번이 기회다 !!!

카메라로 떠나는 일본 후쿠오카,기타큐슈,야마구치 출발일 5/17, 5/22, 5/29

- ▶ [한정특가/선착순 8명] 가족과 함께 떠나는 고급 별장 온천여행 4일 ₩299,000~
- ▶ [포격] 야마구치 전통로칸 온천 여행 4일 ₩539,000~
- ▶ [실속] 기타큐슈 온천여행 4일 ₩499,000~
- ▶ [부관혜리/특가] 북큐슈 미야자마,이와쿠니 3박4일 ₩399,000~

항공으로 떠나는 기타큐슈, 후쿠오카 **팬스타로 떠나는 오사카, 나라, 교토**

- ▶ [특가] 에어부산으로 떠나는 기타큐슈 2박 3일 ₩599,000~
- ▶ [팬스타] 오사카, 나라, 교토 4박 5일 ₩599,000~

포 함 : 왕복 선박항공, 유류세, 부두세&공항세, 일정표상의 관광지 입장료, 식사, 가이드비 불포함 : 여권 및 개인경비, 싱글차지, 광주-부산 국내 수송비

2016년 무안출발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 여행!! 출발일 7/28, 8/1, 8/6, 8/11

울란바토르, 테를지	3박5일 ₩ 1,499,000	출발일 : 7/28, 8/11	트래킹	3박5일 ₩ 1,499,000	출발일 : 7/28, 8/11
	4박6일 ₩ 1,649,000	출발일 : 8/1		4박6일 ₩ 1,599,000	출발일 : 8/1
	4박6일 ₩ 1,599,000	출발일 : 8/6		4박6일 ₩ 1,549,000	출발일 : 8/6

불포함 : 싱글차지, 호텔(2인실)/캐러(4인실)기준,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발맞사지 봉사료

민족의 영산 백두산!!

무안공항 - 연길 / 백두산 전세기 [FM-상해항공]

- ▶ 출발일 7/13 ~ 8/24(수, 토 출발)
- ▶ 북파·웅정·도문 4일 [실속] ₩1,140,000~ [포격] ₩1,250,000~
- ▶ 북파·서파(천지2회) 4일 [실속] ₩1,250,000~ [포격] ₩1,340,000~
- ▶ 북파·서파·웅정·도문 5일 [실속] ₩1,290,000~ [포격] ₩1,390,000~

불포함 : 싱글차지, 개인경비 및 공항수송비

무안공항 - 연길 / 백두산 전세기 [TW-티웨이항공]

- ▶ 출발일 7/20~8/27일(수, 토 출발)
- ▶ 북파·웅정·도문 4일 [실속] ₩1,040,000~ [포격] ₩1,140,000~
- ▶ 북파·서파(천지2회) 4일 [실속] ₩1,150,000~ [포격] ₩1,240,000~
- ▶ 북파·서파·웅정·도문 5일 [실속] ₩1,190,000~ [포격] ₩1,290,000~

불포함 : 싱글차지, 개인경비 및 공항수송비

무안 → 북해도(삿포로) 전세기 취항

- ▶ 출발일 7/31, 8/4, 8/8, 8/12
-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탄, 오타루, 삿포로 5일 ₩1,599,000~
- ※ 삿포로 1일 자유일정
-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탄, 오타루, 삿포로, 후라노, 비에이 5일 ₩1,699,000~
- ※ 3대 캐리어 포함
- ▶ 노보리베츠, 도야, 오타루, 삿포로, 하코다테, 후라노 5일 ₩1,799,000~
- ※ 3대 캐리어 포함

불포함 : 개인경비, 기타매너팁, 기사&가이드 경비(¥4,000)/인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 ▶ 북경, 만리장성 4일 ₩650,000~ ※화요일 출발
- ▶ 북경, 고북수진 4일 ₩750,000~ ※화요일 출발
- ▶ 연산, 태항대협곡 5일 ₩1,150,000~ ※금요일 출발

불포함 : 개인경비, 매너팁, 선택관광

인천에서 떠나는 중국의 숨은보석 산동성!!

- ▶ 산동성(치바이, 제산, 제남) 4일 ₩699,000~
- 특전 : 광주-인천 왕복 수송 포함!!!

불포함 : 개인경비, 매너팁, 선택관광, 광주-인천 이동 중 식사

- ▶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99,000~
- 불포함 : 기사&가이드(₩10,000), 현지식별관광, 석식2회
- ▶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89,000~
- 불포함 : 기사&가이드(₩10,000), 현지식별관광, 석식2회
- ▶ 광주-울릉도 3일 ₩345,000~
- ▶ 목포-홍도, 흑산도 2일 ₩155,000~

직원 및 일본어 가이드 모집

- 모집인원 0명
- 외국어구사 능력자 우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운전면허 소지자
- 홈페이지 관리 유경험자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마트는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별 가입예외사항(미국, 국내선 5인만),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전차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 가입일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없음), 기사/가이드봉사료,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용에 따라 다름